

서쪽 참배길

서쪽 참배길은 구레하시 다리에서 우사 신궁 경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과거에는 신사의 큰 참배길로 사용되면서 참배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가게나 식당, 여관 등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사 신궁 경내에서 이루어진 쇼와의 대재건(1932~1941)으로 우사 신궁으로 통하는 북쪽 길이 큰 참배길로 변경되었고, 서쪽 참배길은 작은 신사와 기념비, 중요 유적 등만 남은 조용한 가로수길로 변모했습니다.

서쪽 참배길의 출발점은 구레하시 다리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지붕 달린 다리의 대문은 거의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칙사(천황의 사신)가 방문하여 10년에 한 번 ‘린지호헤이사이(臨時奉幣祭) 축제(臨時奉幣祭)’ 등의 특별한 의식이 열릴 때에만 건널 수 있도록 대문이 열립니다. 서쪽에서 신사로 향하는 참배객들은 근처의 보행자용 다리를 건너 서쪽 참배길에 도착하게 됩니다.

서쪽 참배길 남쪽에는 미로쿠지 절(彌勒寺)의 절터가 있습니다. 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신사와 사찰이 융합된 신불습합 형태의 종교 시설이었던 우사 신궁에서 미로쿠지 절은 특히 중요한 불교 사원으로서 종교적, 행정적인 기능을 모두 수행했지만, 그 강력한 권력도 차츰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1868년 정부가 신도와 불교의 분리를 명한 이후 사찰은 철거되었고 나무들 사이에 초석만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서쪽 참배길 주변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장소는 우사 신궁의 말사(큰 신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인 야사카 신사입니다. 야사카 신사는 바다와 폭풍과 연관된 신인 스사노오노미코토를 모신 곳으로, 주홍빛의 신전에는 나무로 조각된 파도 속 용의 모습이 선명한 색과 칠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매년 2월 야사카 신사에서는 역병이나 재해 등의 불행을 막기 위해 기원하는 ‘진에키사이(鎮疫祭) 축제(鎮疫祭)’라는 액막이 의식이 열립니다.